BTS '퍼미션 투 댄스' 빌보드 1위 '버터'와 바통터치



▲ 방탄소년단(BTS). 사진=빅히트뮤직

그룹 방탄소년단(BTS) 노래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주고받는 대기록을 썼다.

빌보드는 지난 19일 BTS의 세 번째 영어 신곡 '퍼미션 투 댄스' (Permission to Dance)가 메인 싱글 차트 '핫 100' 정상에 올랐다고 발표했다. 지난 9일 발매된 '퍼미션 투 댄스' 는 앞서 7주 연속 핫 100 1위를 기록한 '버

터' (Butter)를 밀어내고 정상에 등극했다.

자신의 1위 곡을 대체해 후속곡을 다시 1위에 올려놓은 사례는 2018년 7월 드레이크 이후 3년 만이다. '버터'는 7위를 기록했다.

'퍼미션 투 댄스' 가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올라서면 서 BTS는 '다이너마이트', '새비지 러브' 리믹스(피처 링 참여), '라이프 고스 온', '버터' 에 이어 5개의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이 됐다.

BTS의 핫 100 1위 횟수는 '다이너마이트' (3회), '새비지 러브' 리믹스(1회), '라이프 고스 온' (1회), '버터' (7회)에 이어 '퍼미션 투 댄스' 까지 총 13회로 늘었다.

'퍼미션 투 댄스'는 62년의 빌보드 핫 100 역사상 1 천126번째 1위 곡이자 발매와 함께 1위로 직행한 55 번째 곡이다.

빌보드는 "BTS는 '다이너마이트' 와 '라이브 고스온', '버터', '퍼미션 투 댄스' 등 모두 4곡을 '핫 100' 1위로 바로 데뷔시키는 위업을 달성했다." 고 전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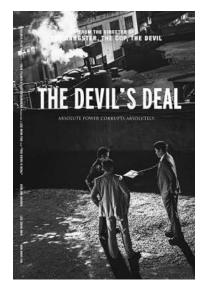
'대외비', 판타지아영화제 경쟁 부문 초청

한국영화 '대외비' (감독이원태)가 제25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경쟁 섹션에 공식 초청됐다.

'대외비'는 돈, 권력, 명예, 각자의 욕망을 위해 위험한 거래를 시작하는 세 남자의 배신과 음모를 그린 영화이다. 이원태 감독의 전작 '악인전'은 제23회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베스트 액션 부문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바 있다.

올해로 25회를 맞이한 판타지아 국 제영화제는 북미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장르 영화제로 오는 8월 5일부 터 25일까지 열릴 예정이다. '대외비' 는 판타지아 국제영화제 경쟁 섹션인

슈발 누이르에 공식 초청돼 8월 7일 극장 상영을 통해 해외 관객과의 첫 만남을 가진다. 올해 판타지아 국제 영화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하는 하이브



▲ '대외비' 영문 포스터=Global Citizen

리드 이벤트로 진행될 예정이며, 약 100여 편의 상영작 중 13편 내외의 작품만 상영될 예정이라 '대외비' 의 극장 상영은 뜻깊다.

'대외비'는 슈발 누아르 경쟁 섹션과 더불어 관객이 직접 선정하는 Best Asian Film 부문에도 노미네이 트 됐다.

판타지아 국제영화제의 아시아 프로그래밍 공동 디렉터인 니콜라 아르샹보는 "칸 선정작 '악인전' 이후 이원태 감독이 농익은 연출력으로처음 선보이는 '대외비' 는 노골적인 사회 풍자로 시작하여 부패와 내부자거래, 조직범죄로 꾸려진 격렬한스릴러로 변주한다." 면서 "'대외비'

는 몰입감 넘치는 음악, 매혹적인 줄거리와 영리한 반 전을 지닌 반드시 보아야 할 작품" 이라고 초청한 이유 를 밝혔다.

오바마, 한국 tvN '월간 커넥트' 출연



▲ 사진=tvN

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한국 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.

지난 21일 tvN 측은 한 달에 한 번 온라인으로 세계적인 지식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 '월간 커넥트'에 오바마 전 대통령이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.

오바마 전 대통령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인 터뷰하는 형식으로, 방영 시기는 8월 6일 밤 11시 10분(한국 시간)이다.

오바마 전 대통령은 방송에서 정치인이자 남편으로서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할 수 있었 던 배경, 대중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과정, 회 고록 '약속의 땅' 출간 뒷이야기 등을 전할 예 정이다.

tvN 관계자는 "오바마 전 대통령의 회고록 국내 출판을 담당하는 출판사를 통해 섭외를 진행하게 됐다" 며 "젊은 세대들을 위해 회 고록을 썼다'는 책 내용을 보면서 '월간 커넥 트'에서 그의 통찰을 전달해보고 싶었다." 고 섭외 배경을 밝혔다.

연출을 맡은 공효순 PD는 "국내 TV 프로그램 최초로 정치인이자 인간 오바마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솔직한 인터뷰와 그의 특별한 인 사이트를 월간 커넥트를 통해 전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." 고 말했다.



*가품은 거절합니다. 문의전화: Mr. Chu 626.465.6164 Wife: SAM YEE CHO Son: MICHAEL CHO

*소식을 아시거나 연락 가능하신 분도 연락주세요